

“하고 싶은 일 많으면 야근도 신바람”

조직위한 희생 - 윗사람 강압때만 제 할 일도 안해

신세대 직장인들의 큰 특징이라면 '워터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고 '탈권위주의'를 꼽아 수 있다.

K기업(鄭多杓장(35)이 전한 환(金)·정현(金)한 부만.

부하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려줬더니 첫마디가 "안될것같다"였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 으리 때 같이하면 어림없고 대드라고 했더니 "지금 이 때가 아니냐"고 불만을리를 하더라"고.

간접 상급자를 신세대 직장인에게 물어보면 전연 다를 일장 이가게 된다.

이 회사 權오씨(28)의 말.

『10년전』20년전 상하에 꺼내며 무조건 복종할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 아닐까. 세상이 변하는데 언제까지나 "야, 옛날이랑"하고 옛날자세로 일하면 신세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신세대 직장인이 될수 있겠냐"고(Enjoy, Exciting, Entertainment)했다가 한다. 쟁쟁하게 무뎠음도 없으니 직장인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의 쟁

출세보다도
“**회식은 점심**”

삼성물산「테크노밸리」
팀의 무서운 신세대
들. 하고 싶은 일을 마
음껏 할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불륜을 가리
지않고 일하는 것이 신
세대다.

불륜은 우리는 호된 시집살이를
겪고도 머니 리용도를 받지 못
하는 불행한 세대라고 한탄하
기도 한다.

신세대가 좋아하는 직장
을 日本에서는 花月長眠이라고 표
현하는데 우리 상황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텔런트 型상사 人氣
花形상업 (우리식으로 하면
성상잔업)이면서 월급이 많고
장기휴가를 즐길수 있으며 社
風(회사분위기)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것이다.

성상잔업이라고 해도 개인시
간을 뺏기는 직장은 질색들을
한다. 근무시간후의 공식 비공
식 모임을 싫어하여 웬만한 회
식은 점심시간을 활용한다. 등
료간에 사사로운 정을 나누던
일들이나 돌잔치풍속도 달라졌
다. 아기와 아기엄마를 회사 근
처 음식점으로 나오게 해서 동
료들을 대접하는 '원정 돌잔치'
가 환영받는다.

사무직에도 3D바람이 불것
출세보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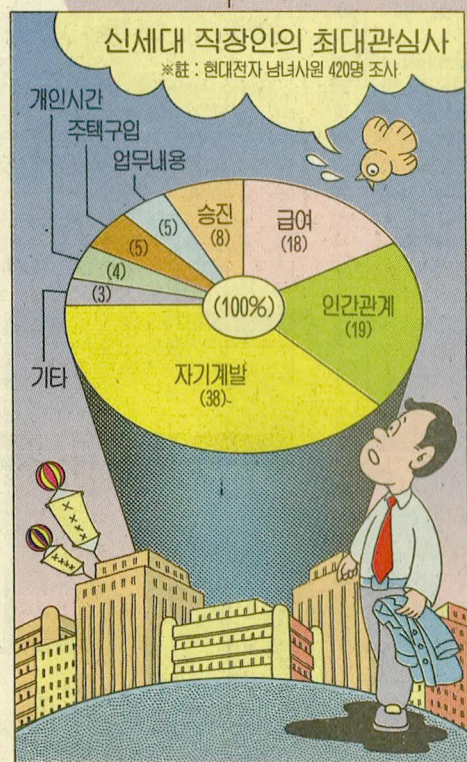
『당신이 「거품族」은 아닙니까』
신한종합연구소 사회문화팀은
최근 직장내 「거품족」(미스터 버
블리)을 연구한 보고서를 펴냈
다.
거품족이라는 말은 거품경제
현상을 보이던 86년경부터 90년
사이에 입사했거나 이무렵 대학
시절을 보낸 신세대를 일컫는 신
조어.『아직도 호시절이 계속되고

점만으로 채워하는 회사를 선
택했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아무리 힘고 편한 일
을 좋아하고 연가를 중시한다
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몰입하지 않는 이들이 신
세대다. 외면적 성공이나 출세
에는 관심이 없는 반면, 도전
과 성취를 내면적 가치를 추구
하는 이들이 많다.
이같은 신세대의 성향을 활
용,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기업
도 있다. 삼성물산의 「테크노
밸리」가 한 예다.
「원정돌잔치」성행
『플라워링 28.5세 인사 1』
2년차가 대부분. 열이 마늘에
끓인 된장국도 아깝지 않게
이런게

과는 달리
일할수 있는
과가 이뤄져
『하고 싶은
있으니』가
셈입니다.
신사람이
지난 2월
(25)는 물리
이런게

타개하기 위
수족 이
성그룹 수
30억원이
이 개발
광고내장
면 자동차
적하는 「트
멀어지면

선
전
성취등
내면가치
때
“ 자기시간 빼기
구하는 특선도 있다.



신세대직장인의 직장내 최대관심은 「자기계발」(38%) 그 다음은 인간관계 (19%)로서 급여(18%) 승진(8%) 등은

“예과후 특별하의 없으면” 上司보다 먼저퇴근” 87

新
世
代

< 5

직 장 인

을 보인다. 말하자면 자발적인「회사내 실업자」다.

이들에게도 여러 형태가 있다.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고 일을 떠맡지 않으려는「대답파」가 있는가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사적인 일에만 매달리는「실속파」도 있다는 것.

「경기 불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최근 많은 경영자들이 유능한

직장인



들은『우리는 호된 시집살이를 겪고도 머느리후도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신세대가 좋아하는 직장을 일본에서는『花月長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상화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텔런트형상사 人氣
花形산업(우리식으로 하면 성장산업)이면서 월급이 많고 장기휴가를 즐길수 있으며 社風(회사분위)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성장산업이라고 해도 개인시간을 뺏기는 직장인들을 위한 식모업을 생애하여 웬만한 회사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한다. 동료들끼리 사소한 문제를 나누고 질문이나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다 아기와 아기엄마를 회사 근처 음식점으로 나오게 해서 동료를 대접하는『원정돌잔치』가 환영받는다.

출세보다 도전·성취등 「내면가치」 중시

회식은 점심때... 자기시간 뺏기면 질색

삼성물산 테크노밸리」 팀의 무서운 신세대들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마려고 일하는 것이 신세대다.

은 이제 오를일이 아니다. 심지어 한 직장인(27)은『인사시험 보다가도 문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포기하고 나란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자신도 필기시험보기 귀찮으면

을 보인다. 말하자면 자발적인『회사내 실업자』다. 이들에게도 여러 형태가 있다.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고 일을 떠맡지 않으려는『대답파』가 있는가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사적인 일에만 매달리는『실속파』도 있다는 것.

『당신이「거품族」은 아닙니까』 신한종합연구소 사회문화팀은 최근 직장내「거품족」(미스터 버블리)을 연구한 보고서를 펴냈다. 거품족이라는 말은 거품경제 현상을 보이던 86년경부터 90년 사이에 입사했거나 이무렵 대학시절을 보낸 신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아직도 호시절이 계속되고

“거품族”을 아십니까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 自發的「회사내 실업자」

있다』는 착각속에 혼자서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거품족의 특징은 한마디로 3無현상을 보인다. 즉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의 3無가 그것으로 △조직의 입장보다는 개인적 관심에서 일을 추진하고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리만큼 과시하며 △인내심과 끈기로 남아있기 원하며면서도 불평불만을 일삼는 성향

젊은 인재부족을 안타까워한다. 우수한 학교를 졸업하고 뛰어난 자질도 있으면서 정작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다』 사회문화팀 李春國팀장은 어릴 신세대를『미스터 버블리』라고 명명하고 이들을 조직과 조화시키는 경영기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점만으로 채용하는 회사를 선택했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아무리 쉽고 편한 일을 좋아하고 여가를 중시한다고 해도 자기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지 않는 이들이 신세대다. 외면적 성공이나 출세에는 관심이 없는 반면, 도전과 성취를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이같은 신세대의 성향을 활용,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기업도 있다. 삼성물산의「테크노밸리」팀이 한 예다. 「원정돌잔치」성행 「원정돌잔치」 28.5세, 입사 1~2년차 대부분. 입사 마다에 들면 퇴근시간도 아랑곳하지않음. 팀장의 퇴근이 가장 빠른 점. 팀장 孫秉建과장(35)의 표현에 따르면 이같은 신세대들만 이 할수 있는「만화같은」일을 하고있다. 어린이가 부모에게서

과는 달리 신세대에게 마음껏 일할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춘 결과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일이 아니라 놀이인 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신바람이 난다고 할까요」 지난 2월에 입사한 朴政炯씨(25)는 물만난 고기표정이다. 「아니게 아니라 테크노밸리」의 분위기는 놀이터를 연상케 한다. 팀장의 직원을 불러무개 야투고 직원을 불러서로를 차 렌지「비렌지」라고 부른다. 孫과장은 오후 2시를 노는 것도 과장은 오후 2시를 노는 것도 재미있다면 신세대를 내쫓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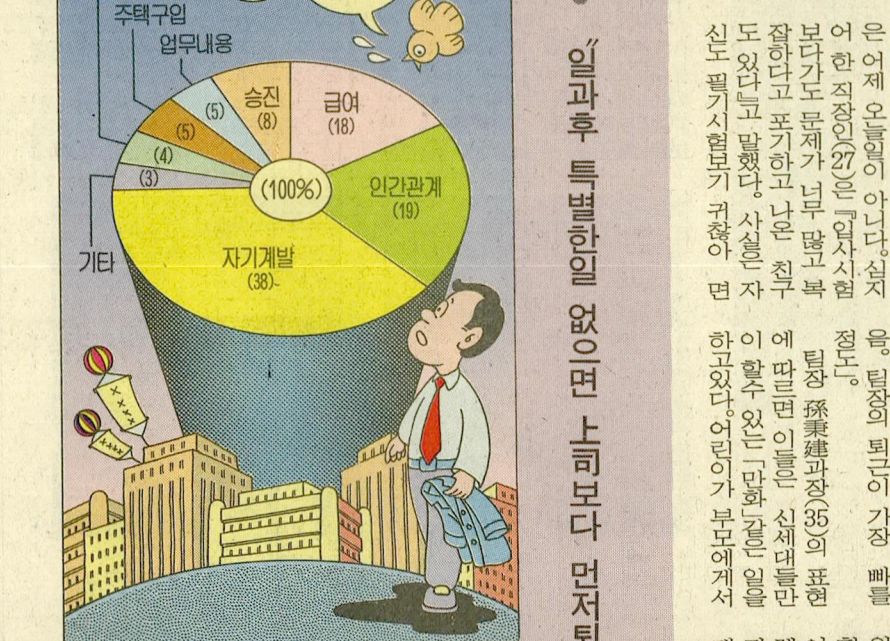
로 맞추려면 어렵지만 내가 그 쪽으로 가면 모든일이 쉽게 풀린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텔런트」 신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코디네이터일뿐이요. 절대로 이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는 안됩니다. 시키는 일이라면 되레 할일도 안하는 것이 신세대니까요」

기업체 「연구」 활발 신세대 입장에서 신세대를 「공부」하고 기업과의 조화를 꾀하는 움직임도 있다. 코오롱상사가 4월 3차에 걸쳐 「과장대상으로」 신세대를 직접 육성할것인가를 주제로 1박 2일 교육을 실시, 화제를 모았다. 올초로 신세대 연구 시리즈를 내 삼성그룹에서 도 부장들에게 「신세대 교육」을 하면서 이들을 위한 인사제도도 연구중이다.

「에너지」란 앞으로 흐르는 법이다. 신세대를 안두를 수는 있어도 거스를 수는 없다. 신세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심리학자인 成璽信교수(고려대)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金順德)

「우리를 호된 시집살이를 겪고도 머느리후도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신세대가 좋아하는 직장을 일본에서는『花月長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상화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성장산업이라고 해도 개인시간을 뺏기는 직장인들을 위한 식모업을 생애하여 웬만한 회사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한다. 동료들끼리 사소한 문제를 나누고 질문이나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다 아기와 아기엄마를 회사 근처 음식점으로 나오게 해서 동료를 대접하는『원정돌잔치』가 환영받는다.

신세대 직장인들의 큰 특징이라면 회사사람이라고해서 무조건 따지는 않는다는 「탈권위주의」를 꼽을 수 있다. K기업(鄭某과장35)의 경우 활동(○)을 열람한다. 부장직원에겐 일부지시를 내렸더니 첫마디가 「안될것같다」였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 우리 패자이면 어릴것대도라고 했더니 「저만 이 정도냐고」 불만을사를 하더라는 것.



신세대 직장인의 직장내 최대관심은 「자기개발」(38%) 그 다음은 인간관계 (19%)로서 급여 (18%) 승진 (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현대전자가 18~35세의 남녀사원 4백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 이들은 대부분 「급여와 상관없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개인적 선약과 회사일이 겹칠때는 「선약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퇴근시간인대도 특별한 일없이 상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경우에는 「먼저 퇴근한다」는 소신파가 87%나 됐다.